

법회 800회·연예봉사·서적 기증...

# 20년간 재소자의 '등불' 역할

## 제23회 교정대상 수상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는 노랫말과 같이, 한 사람의 특별한 선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는 밑거름이 된다.

한 스님이 이와 같은 일을 2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5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인 ‘자비상’을 수상했다. 그 주인공은 전북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승천 스님은 1985년 일광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직후인 86년부터 전주교도소와 인연을 맺고, 재소자들을 새 삶으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교정대상까지

받게 된 것이다.

스님은 지금까지 전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800여 회의 법회를 열고, 1500여 장기수를 위한 교리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1420명에게 계를 주고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또한 연예봉사단을 후원, 국악과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을 열어 문화적인 소외감도 덜어주고 불교 서적과 용품, 교화용 텔레비전 등을 기증해 수감인들의 갱생을 도왔다.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많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직장과 가정을 가진 여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승천 스님은 자신의 선행이 자

기보다 남을 앞세우는 스님 본분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겸손해 한다. 그러나 전주지역 불자청년회원들은 “재소자와 불우 청소년,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스님의 모습은 지역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광사는 300여 년 전에 세워진 전통사찰이지만 최근까지 허름한 슬레이트 건물에 불과했다. 외형적인 불사보다는 ‘인간불사’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소신 때문이다. 그런 스님의 뜻에 공감한 불자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고, 스님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광사를 여법하게 바꿔 놓았다. 그



재소자들의 갱생을 도운 공로로 승천 스님(사진 맨 왼쪽)이 교정대상 자비상을 받고 있다.

리고 이제 일광사는 신도수 1500여 가구의 정읍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다.

그레서일까, 스님은 모든 공을 신도들에게 돌린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부처님 심부름하고 신도를 심부름하고... 제가 받은 상도 부처님과 신도들 몫이지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심부름 해야죠”하며 겸연쩍어 했다.

승천 스님은 지역 독거노인 15가구에도 주기적으로 쌀, 의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읍경찰

서와 함께 재학 중 죄를 범한 학생들을 위해 한달 1회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불우가정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승천 스님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스님은 “시골 폐교를 인수해 장애인과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지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23일에는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행사도 주최했다.

글·사진=강유신 기자

## ‘참여불교’ 종교개혁 방향제시

### 권력화 자본주의화 배타주의의 문제 다뤄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을 통해 창출된 근대권력이 다시 도전받고 있다.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선거제도가 ‘계파정치’를 낳고, ‘권력’의 논리가 교단 상층부를 관통해 권력과점화의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가 발행하는 <참여불교>가 ‘종교개혁’을 주제로 2005년 봄호부터 4회에 걸쳐 종교의 권력화, 자본주의화, 보수우경화, 배타주의의 문제에 접근해 종교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과점 현상의 심화와 그 문체점’이라는 글에서 조계종 내부가 ‘독점에서 권력과정으로’ 권력구조가 재편됐으며, 그 중심에 ‘탈색된 문종주의와 교구본사권력 및 중앙종회’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중앙종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으로 ‘인사에 대한 폭넓은 선출권’과 ‘불징계특권’ 등을 꼽으며 “중앙종회는 과도한 결집문제(입법/사법/행정)의 진원지로, 무책임하고 반불교적인 정치세력화, 선거부정(금권선거), 선거법 무력화(책임추궁 없음/평가 부재) 등 온갖 부정적 역할의 운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재개 반발

### 불교환경연대, 반대 성명

환경 파괴 논란을 빚어왔던 통영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5월 13일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토지 소유자인 용화사가 조계종 총무원에 토지 임대 승인 요청을 했고, 통영시는 조계종의 토지 임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케이블카 설

치 공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총무원은 토지 임대 승인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우리는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곳곳의 수경환경과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후 불교계 및 시민·사회·환경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통영시는 2002년 12월 미륵산 아래 케이블카 정류장을 짓는 공사에 착수해 내년 3월경 완공할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 국립학교 종교교육 시정 촉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규과정 포함 교육기본법 위배”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일부 국립학교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시정을 촉구 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5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관리감독 강화 제요청’ 공문을 보내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아닌 교육체계 안에 포함된 정규교육과정”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교육기본법을 위배한 것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에 앞서 서울시내 55

곳의 공립중등학교 종교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29곳이 종교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학교 8곳의 경우 교내에 아닌 특정 종교시설을 이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교육기본법 6조에는 국립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만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빈그릇운동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빈그릇운동 100만명 서명 캠페인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24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던 정토회의 ‘빈그릇운동’이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다시 시작했다.

정토회 예코부터(이사장 법륜)는 5월 20일 서울 명동에서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명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예코부터 이사장 법륜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진원 스님, 광결호 환경부 장관, 원불교 천지보은회 이선종 교무, KNCC 총무 백도웅 목사, 방송인 김미하, 배우 유순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

식에서 참석자들은 “빈그릇운동이 전국민의 생활문화운동으로 번져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되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법륜 스님은 “향후 빈그릇운동이 환경운동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지구촌 생명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광결호 환경부 장관도 “230억원의 돈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사용되고 있다”며 “전국민적 동참으로 헛돈이 쓰이지 않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빈그릇운동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종욱씨와 손현주씨도 “뜻깊은 운

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코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동대부고 전국 축구 우승**

동국대부속고등학교(교장 한성규) 축구부는 5월 16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4회 금석배 축구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서울 중동고를 물리치고 우승했다. 동대부고는 전·후반 90분과 연장 접전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해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8-7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19일 감독과 선수들을 초청해 대회우승을 보고 받고 격려했다.

조용수 기자

## 백양사-전남도청 공동 28~29일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 템플스테이 사업팀이 전남도청과 공동으로 백양사 템플스테이를 5월 28-29일 개최한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전남 도내 10

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선정할 바 있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도 전남의 9개 사찰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백양사 템플스테이의 참가 경비는 어른 7만9000원, 어린이 7만4000원이며 신청은 5월 27일까지 마감한다. 신청은 주관 여행사인 여행자를 락(02-2277-5155)으로 하면 된다.

# 하안거 90일간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기도영험도량이자 전법수행도량인 서초동 수안사에서는 5월22일(음. 4. 15)부터 8월 19일(음. 7. 15) 백중까지 하안거기간 동안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를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기도는 그동안 1차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법회에서 뒤엎던 기도공덕과 신도님들의 성원에 더욱 힘입어 매일 세 번(새벽, 사시, 저녁)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와 매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하며, 백중까지 친가와 처가의 5대조 영가까지 열 번의 조상천도 법회를 봉행합니다.

천수다라니경에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묘장구대다라니는 모든 중생들에게 안락을 얻게 하고, 모든 병을 제거하며, 수명장수하게 하고, 부귀와 풍요를 누리게 하며, 모든 악업과 중죄를 없애고, 모든 선근을 성취케 하며, 모든 두려움을 멀리 여의게 하고, 모든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바를 빨리 만족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끊임없이 지송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과 호법선인들이 항상 아끼고 보호하며, 천마(天魔)와 외도(外道)가 침범하지 못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며, 무생보(無生報)를 이루고 필경에는 성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수안사에서는 하안거기간 동안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및 백중 천도기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이 선근공덕으로 조상영가와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시며, 가정이 늘 행복하고, 모든 업장과 액난이 소멸되고 복덕이 구축하여 모든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고 구경성불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법회 시간**: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6시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기도 : 밤 11시 부터 새벽 3시 30분 까지
- **백중 천도기도법회 일시**
  - **일제일**: 2005년 5월 22일 (음 4.15) (일) 오전 10시 30분
  - **1 차**: 2005년 5월 31일 (음 4.24) (화) 오전 10시
  - **2 차**: 2005년 6월 10일 (음 5. 4) (금) 오전 10시
  - **3 차**: 2005년 6월 20일 (음 5.14) (토) 오전 10시
  - **4 차**: 2005년 6월 30일 (음 5.24) (목) 오전 10시
  - **5 차**: 2005년 7월 10일 (음 6. 5) (일) 오전 10시
  - **6 차**: 2005년 7월 20일 (음 6.15) (수) 오전 10시
  - **7 차**: 2005년 7월 30일 (음 6.25) (토) 오전 10시
  - **8 차**: 2005년 8월 9일 (음 7. 5) (화) 오전 10시
  - **외양일**: 2005년 8월 19일 (음 7.15) (금) 오전 10시 30분 (백중)
- \* 이번 제2차 천수다라니 독송기도는 지난 1차 독송기도 때와 마찬가지로 천수다라니를 매일 108번씩을 기준으로 독송하게 되며, 동참자들의 독송 횟수를 날마다 합산하여 백중날까지 독송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매일 수안사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가정에서 21번이나 49번, 108번을 독송기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수안사에 독송횟수를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영가천도제는 친가와 처가의 5대조 영가까지 위패를 모시고 열흘마다 천도재를 모두 열 번 봉행하오니 영가 명단을 수안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587-4677, 3213 / **팩스**: 02)522-5666
- **계좌번호**: 외환은행 108-18-51234-7 (예금주: 박경열)
- **오시는길**: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 → (도보 7분) 두 번째 GS주유소 뒤 3층 건물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38의 12호

수안사에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독송공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불설 천수천안 광대량만 무애대비심 다라니경」을 법포시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서초동 우면산 수안사 회주세민합장